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7화 태자(太子)와 부왕(父王) ①

이만하면 부왕의 뜻을 확실하게 알아들었을 만도 하건만 태자의 간곡하고 끈질긴 출가요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낳아 기르신 은혜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어 이 한세상 다하여도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일승묘법을 닦고 정각을 이루게 되면 부모님의 은공을 한번에 갚을 수 있고, 또 만백성을 구할 수 있을 것이어서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임을 멈출 수 없나이다."

"나는 더 이상 태자와 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비록 오늘 출가하여 내일 도를 터득하고 나로 하여금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몸이 하늘의 도솔천에 올라 온갖 쾌락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허망한 망상일 뿐이요 단 하나도 믿을 바가 못 된다. 너의 출가로 인하여 샤카족 왕통의 종묘사직이 끊어질 것이어서 나는 다만 그것만이 걱정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두 번 다시 이런 대화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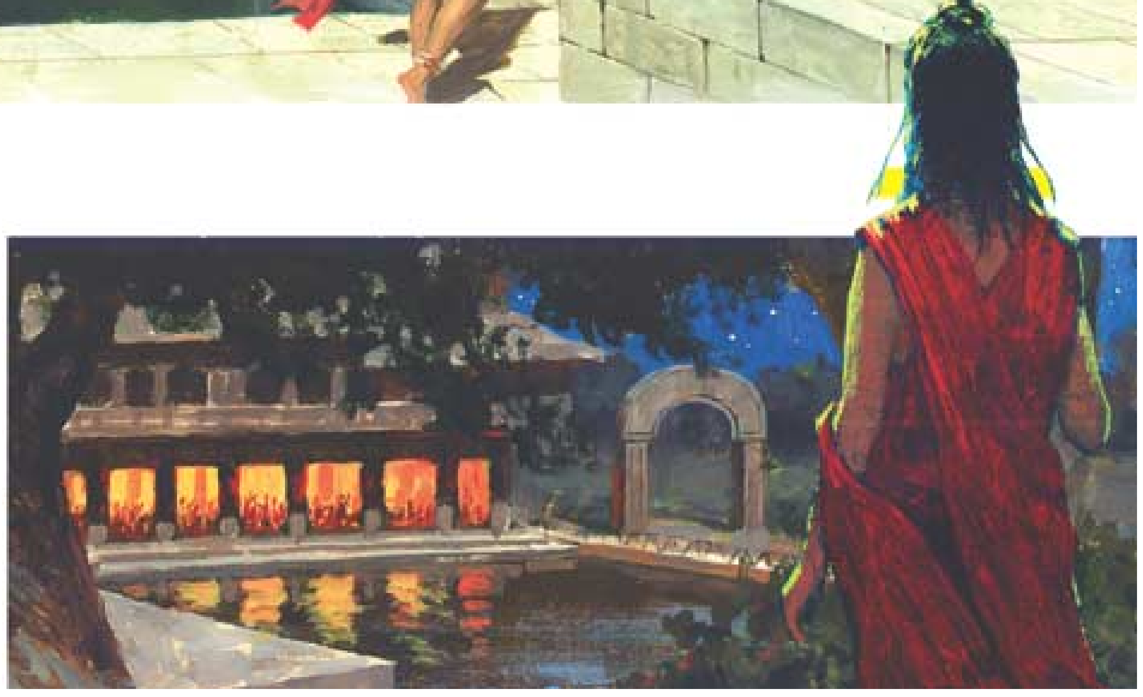
결론이 없는 대화를 끝없이 전개하던 태자와 부왕은 서로가 몹시 피곤해 하였다. 태자가 물러가자 이때 아까부터 옆방에 숨어서 대왕과 태자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던 마하파자파티가 대왕마마 앞에 나타났다.

"아마도 대왕의 간절한 소망을 태자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태자 또한 그 뜻이 분명하여 꺾을 수가 없어 보이옵니다. 대왕마마, 옛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기억하소서…. 선인이 말하기를 출가하면 반드시 정각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위에 오른다면 차크라 바르틴(轉輪聖王)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태자에겐 위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옵니까. 지금 태자는 판단의 혼란속에 빠져 있사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태자를 사랑하는 나머지 태자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가르쳤고 오욕의 즐거움 속에서만 지내게 하였던 것이옵니다.

그러다가 태자가 첫 번째 출성에서 벌써 인생의 반대급부를 보게 되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 것이 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건대 태자에게 사랑이 잘못 전달된 저희 부부의 책임이 결정적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너무 태자를 감싸고 모든 불행으로부터 차단시키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면 어떠하옵니까? 내일부터라도 궁중의 모든 미녀들을 총 동원하여 태자의 남자다운 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스스로 오욕의 재미를 느끼게 함이 좋을 듯 하옵니다. 이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태자에게 접근을 하여 사랑을 받는 여인에게 큰상을 내리십시오. 궁안에 많은 여인들은 비록 태자가 어렵다 하여도 자기 가문의 명예와 부를 취하기 위하여 갖은 지혜를 다 짜낼 것이옵니다. 역시 남자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여자들뿐이옵니다."

다음날부터 태자궁에는 미색을 뽐내는 수많은 여인들이 몰려들어 태자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의 막이 열렸고 영문도 모르는 듯 태자는 그녀들이 던지는 온갖 아양과 추파에 시달리기만 하였다. 이 또한 부모님의 뜻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려는 태자의 깊은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자를 기쁘게 하여 그의 사랑을 쟁취해보려는 여인들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져 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들에 대한 태자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태자로서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기쁘게 해 드리려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라훌라는 건강하게 커갔고 따라서 운명의 그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닥쳐온 그날도, 싯다르타 태자는 수십명의 채녀(采女)들에게 둘러싸여 오욕의 즐거움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밤은 깊어갔고 짙게 퍼지던 전단향도 그 향기를 잃었으며, 간다르바의 음악도 졸기 시작하여 광란하던 연회도 파했다. 싯다르타는 자리를 일어나 붙잡는 여인들을 뿌리치며 정원으로 나왔다.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고 꽃가루를 뿌린듯한 은하수가 그 황홀한 모습으로 하늘위를 수놓고 있었다.